

INTRO : KEYWORD

인터뷰이 필진들의 말, 말, 말 :

내가 원하는 미래 문화기술과 그 모습은?



“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눈 맞춤이다. 자기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상대 의사를 인정하여 서로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. 미래의 문화기술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서로 아낌없이 소통할 수 있는 눈 맞춤의 기술이라 상상해 본다.”

박민철 KIST 박사

“간절히 바라는 미래 기술은 음성 텍스트 통번역 변환 기술이다. 취재한 녹취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, 이왕 기술이 받쳐준다면 영상을 볼 때도 알아서 통번역해주고 자막 처리가 되면 어떨지. <설국열차>의 ‘냄궁민수’가 쓰는 통역기도 상용화됐으면 좋겠다. 언어 장벽을 뛰어넘은 세상은 과연 어떨지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는가. 물론 바벨탑 같은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다.”

김현수 씨네21 기자

“가장 기대하는 미래 문화기술은 ‘블록체인 기술’이며, 그 궁극적 모습은 플랫폼이라는 별도 주도자가 없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주도하는 콘텐츠 시장입니다. 창작자 권리가 잘 보호되고, 노력에 대한 보상과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며 소비자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밸류체인 상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‘블록체인 콘텐츠 생태시스템’을 기대합니다..”

김정수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

“기대하는 미래 문화기술은 홀로그램이다. 문화 콘텐츠와 기술 간 결합의 목표는 결국 저작자가 원하는 환경, 즉 현장을 그대로 담아내는 데에 있다. 이는 콘텐츠 유통 뿐 아니라 기록 보존의 의미도 있다.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홀로그램 그래픽은 콘텐츠가 갖는 시공간의 제약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 기술이다.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을 지구 반대편에서, 혹은 수십 년 뒤에 똑같이 즐길 수 있다면 콘텐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.”

최호섭 프리랜서 IT 칼럼니스트



“AR/VR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영화 <레디 플레이어 원>에서와 같이 현실과 가상세계가 혼합된 콘텐츠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. 아직은 테마파크 같은 체험공간에서나 경험이 가능하지만, 기술의 문턱이 낮아지고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 모바일 앱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”

옥상훈 네이버 에반젤리스트

“인공지능입니다. 인공지능은 미래기술이라고 불리기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.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. 콘텐츠 제작은 물론 게임의 상대, 혹은 쌍방향 내러티브 콘텐츠를 만드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도구는 언젠가는 ‘인공’이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. 새로운 인류, 지성의 탄생과 비견할 만 합니다.”

김시소 전자신문 기자

